

2025 새해 이렇게 김희수 진도군수

“농수산업 경쟁력 높여 다함께 잘 사는 진도 만들 것”



노인 일자리 확대·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촘촘한 복지 실현 호남고속철도 진도 연장·신조도대교 건설 등 인프라 사업 추진

“화합하는 군민, 미래로 비상하는 진도’를 기치로 내걸고 군민과 함께 희망찬 진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며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군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군정 방향으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촘촘한 맞춤형복지 실현 ▲지방소멸 대응 ▲문화도시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6대 목표를 제시했다.

김 군수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동하는 경제, 다함께 잘 사는 진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업을 진도의 핵심 경제 기반으로 삼고, 양배추, 시금치 등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

과 재배단지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해 기후변화 등 미래 수산업에 대비하고,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으로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까지 김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어 김 군수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120만원과 안질환 수술비 3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생활 안정 사업을 추진해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 독립운동가의 공훈 홍보 등 보훈 문화 확산에 나선다.

김 군수는 출산·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출생 기본수당 2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관매도 직항 여객선 건조를 추진하고, 전남형 만원주택과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으로 AI 스마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악고 등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제1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해 문체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민속문화 수도로서 문화·예술·관광이 융합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과 인문 치유 관광 루트 명소화 사업, 세방낙조 아트문화타워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아리랑마을 관광지 캠퍼스, 블루로드 테마여행길 등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한다. 진도와 제주 애향함을 연결하는 1만급 신규 카페리를 오는 2026년 취항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김 군수는 “365일 꽃피는 진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오는 2026년 300억원 규모 농촌협약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 고군면 오일시 삼거리, 의신면 돈지삼거리, 지산면 인지 사거리, 의신면 연주삼거리 등 4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도로와 각종 배수로 등을 정비해 안전 지수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호남고속철도 진도 연장·신조도대교 건설, 서망항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진도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끝으로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방소멸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진도군민의 끈기와 저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분야별 최고의 성과를 발판 삼아 화합하는 군민, 미래로 비상하는 진도’를 향해 더욱 힘차게, 더 높이 뛰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산재보험료 지원

농촌 현장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

해남군은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의료비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업 인력이 부족해 지면서 해외 근로자를 5~8개월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137명을 배정

받은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입출국 및 농가 배치 시 행정처리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촌현장에서 치료비 문제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근로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농업법인)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도 1인당 21만원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인력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고용농가 및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5명 이상 전입 기업 등에 장려금

최대 300만원...24일까지 신청

영암군이 오는 24일까지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단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영암군의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명 이상의 전입 실적을 올렸을 경우 5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전입 실적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지난해 6월 말일까지 전입한 다음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김성미 영암군 인구정책과장은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섬 여행 ‘심야 당번 음식점’ 찾으세요

신안군 조례제정 새해부터 운영

심야·휴일 등 관광객 편의 증대

신안군이 섬을 여행하는 관광객들과 주민 편의를 위해 심야 당번 음식점을 운영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심야시간과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

간과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심야 당번 음식점은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노회읍 보길면 전복 양식장 전경.

완도군, 가격 폭락 전복 양식 어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20억 지원

17일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완도군이 가격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가에 2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 양식 어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긴급 민생안정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완도군 2500여 전복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12월 kg당(10마리) 3만 9250원이었던 전복 가격은 2023년 3만 2500원, 지난해 12월 2만 5000원으로 떨어져 2년 만에 36%가 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전복 주산지 완도군 양식 어가의 생존과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수준으로 생산비 증가와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양식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어가로, 1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1월 중 사업 대상자 검토와 선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은 전국 대비 75% 이상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 주산지로 전복 가격 하락은 어가 소득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긴급 지원을 통해 전복 양식 어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무안군 제주항공 희생·유가족 지방세 환급·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무안군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은 부당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공항에서 전라남도·무안군 합동으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으며,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도시가스 설치비 1000만원 용자 지원

영광군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설치비를 용자 지원한다.

영광군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공사비를 지원하는 ‘2025년 도시가스 설치비 용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 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이다.

대출이자율은 연 1.5% 수준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신청서를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061-350-5997)에 제출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길 영광군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정적 부담이 큰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저금리로 용자해 줌으로써 가스 배관망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24일까지 바우처 택시사업자 추가 모집

목포시가 오는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목포시는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20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편의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

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이다.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가되면서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와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 편의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